



KBO리그 올 시즌 볼넷 폭등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 경기 시간 늘어 흥행 악재 kt 이강철 감독 "올 시즌 S존 예년보다 작아진 느낌"

올 시즌 프로야구 KBO리그는 유독 많은 볼넷이 나오고 있다.

9일까지 열린 265경기에서 총 2천 375개의 볼넷이 나왔다.

경기 당 볼넷 개수는 8.96개. 지난해(경기당 7.38개)보다 1.58개 이상 많다. 1년 만에 20% 이상 폭등한 셈이다. 리그 타율 0.286으로 타고투저 현상이 절된 2018년에도 올해만큼 많은 볼넷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기당 볼넷은 6.42개였다.

말 그대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즌이다.

KBO리그에서 경기 당 볼넷 8개 이상 나온 건 2009시즌(8.06개)이 마지막이었다.

볼넷 남발은 좋지 않다. 리그 흥행에 악재다.

볼넷이 많아지면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흐름이 늘어진다. 경기를 뛰는 선수도, 보는 관중도 지친다.

실제로 올 시즌 많은 볼넷이 나오면서 경기 시간이 길어졌다.

10개 구단 중 평균 경기 시간 3시간 20분 이상을 기록하는 팀은 5개나 된다. 지난해엔 한 팀도 없었다. 2019년에도 없었다. 올 시즌 많은 볼넷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야구인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야구인은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전지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로 리그가 시작됐다"며 "이런 점들이 투수들의 제구 문제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이강철 kt wiz 감독은 9일 "올 시즌 스트라이크존은 예년보다 작아진 느낌을 받는다"며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힘든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현재 KBO리그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한 우리 투수들은 도쿄

올림픽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발적인 볼넷 증가는 팀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SG 랜더스는 최근 독립리그에서 뛰던 사이드암 투수 신재영을 영입하면서 구속에 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류선규 SSG 단장은 "올 시즌 볼넷은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온다"며 "리그 흐름에 맞춰 제구력이 좋은 투수를 찾았다. 신재영의 구속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시즌엔 유독 외국인 투수가 많은 볼넷을 내주고 있다.

9이닝당 최다 볼넷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투수 중 외국인 투수는 7명이나 된다.

지난해엔 5명, 2019년과 2018년엔 4명뿐이었다.

외국인 투수들이 KBO리그 스트라이크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9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황희찬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월드컵 최종예선 티켓 품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스리랑카 상대 5-0 완승 골득실 차로 1위 확정... 정상빈은 A매치 데뷔골 기록

벤투호가 스리랑카 상대로 골 폭풍을 몰아치며 사실상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진출 티켓을 품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스리랑카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에서 김신욱(상하이 선화)의 멀티골과 이동경(울산), 황희찬(라이프치히), 정상빈(수원 삼성)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5-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4승 1무(승점 13·골득실 +20)를 기록, 이날 튀르키예 메니스탄(승점 9)에 2-3으로 패한 2위 레바논(승점 10·골득실+4)과 승점 차를 3으로 벌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13일 열리는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 H조 최종전에서 저서 동물이 되더라도 1위를 지키게 돼 사실상 최종예선 진출이 확정적이다.

한국은 전반 14분 만에 김신욱의 이른 득점포가 터졌다. 태극전사들은 벤치에 준비해놓은 유상철 전 감독의 이름이 새겨진 등번호 6번의 대표팀 유니폼을 들고 추모 세리머니를 펼치

는 장면도 연출했다. 전반 22분에는 이동경이 페널티지역에서 원발슛으로 추가 골에 성공하고, 후반 42분에는 김신욱이 오른발로 멀티 골을 완성하며 스코어를 3-0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후반 7분 황희찬이 4번째 득점을 따내며 대량 득점을 예고했다.

벤투호는 후반 27분 김신욱과 이기제를 빼고 '19세 공격수' 정상빈과 강상우(포항)를 교체로 내보냈다.

정상빈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4분 만에 후반 31분 팀의 5번째 득점에 성공했고,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은 후반 막판까지 스리랑카를 몰아치면서 5-0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입증된 우수한 투수"

ESPN 올스타전 예상 명단

미국 현지에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호투를 이어가는 류현진은 예년과 다름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ESPN은 10일(한국시간) 올스타전 예상 출전 선수를 소개하면서 류현진을 아메리칸리그 선발 투수 8명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류현진은 올 시즌 5승 3패 평균자책점 3.23을 기록 중"이라며 "그는 입증된 우수한 투수"라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지난날까지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는데, 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5% 이닝 동안 6자책점으로 부진해 평균자책점이 크게 늘었다.

그는 11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다시 힘차게 공을 던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세웅의 힘찬 투구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1회 초 롯데 선발 투수 박세웅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마지막 도전... 열정의 코파

결승전에서 3차례 무릎 꿇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4·FC바르셀로나)가 자신의 마지막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에서 첫 메이저 국가대항전 우승에 도전한다.

14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에서 남미축구연맹(CONMEBOL) 2021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축구에 죽고 못 사는 남미 10개국 내달 11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10번 우승했고,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번이나 우승을 이뤄냈다.

바르셀로나에서 눈부신 활약을 벌여온 메시는,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하늘색 줄무늬 유니폼만 입으면 좀처럼 힘을 못 썼다.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등 성인 메이저 국가대항전에 총 9차례 나섰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3차례나 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어 아쉬움이 더 크다.

이번이 사실상 메시의 마지막 코파 아메리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메시는 이번만큼은 꼭 남미 정상에서 보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제주오라초 조재운 전국요트대회 1위

오라초중학교 조재운(5학년)이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전국요트대회 겸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10일 제주도요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보령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조재운은 벌점 110점으로 2위인 부산 신곡초 백우진(벌점 130), 3위 부산 해강초 김민성(벌점 146)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겸 개최됐다. 당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3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21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오로지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보청기 가격 | 차상위계층 | 일반 |
|-------------------------|------------------------------|---|
|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포함) 추가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의 심의번호 2020-GN0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